

#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성대히 진행



9 면 에서 계속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시대 청년학생들, 근로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야회를 관람하였다.

해불야회 시작을 알리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발언에 이어 해불봉을 추켜든 주체혁명위업계승자들의 대오가 입장하였다.

특색있는 해불대행변화가 펼쳐지는 야회장에 《계승》, 《청년강국》,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청년동맹 제9차대회》라는 글말이 부각되었다.

《혁명의 계승봉》 노래선물이 울려 퍼지는 속에 야회장에 달려나온 3명의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켜주시고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혁명의 해불봉을 더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총정리로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념의 해불, 투쟁의 해불이 될 500만 청년전위들의 굳은 맹세를 담아 봉화대에 불을 지피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공적전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기치로 따오를 만리마사대 청년봉화에 거세찬 불길이 솟구쳐오르자 야회장은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라는 제명이 배경대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를 모신 무개차가 청년전위들의 응위를 받으며 야회장에 들어서자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영원한 태양의 청년동맹》 등의 글말이 찬란한 빛을 뿌리었다.

조선청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보여주는 《1927. 8. 28》, 《1946. 1. 17》, 《1996. 1. 19》 등의

글말과 백두산을 해불대행변화로 전처가는 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고 청년운동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탁월한 청년중시정치로 청년동맹을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만들어나가는 믿음직한 권위투사들로 키우시었다.

백두에서 지켜올린 혁명의 해불봉을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내여주시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와 따뜻한 어머니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투쟁의 년대기마다에 영웅적위훈과 자랑스런 승리의 제지들을 아로새기며 영광년길 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결사옹위한 전세대 일렬청년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갈 의지가 《한별》, 《광명성》, 《청년전위》의 글말로 거세차게 타고르며 장대를 굽이 쳐갔다.

최세의 천출위인을 조선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청년전위들의 굽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야회장에 《원수님 모시며 빛나는 청년강국》의 글말이 부각되고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당마르, 원수님이 새겨지고 《영광》 등

의 글말이 펼쳐진 야회장에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우리 당의 제일가는 무기로 내세우시고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이 불의 대화가 되어 파도쳤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움에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품, 그 품이 바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임을 타고르는 불의 세계로 감행길게 펼쳐보였다.

장엄한 불의 화폭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숭고한 인민사랑, 청년사랑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백두산청년강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무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적전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최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갈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맹세인양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의 글말이 배경대에 새겨지며 야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야회장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사도를 창조하며 계속혁신, 계속진전해나갈 일렬청춘들의 혁명적기개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대형들과 불의 불동이 연이어 펼쳐졌다.

충전하는 화광속에 새겨지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선군청년문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물격대》 등의 글말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당중앙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힘차게 내달리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승리와 변혁의 시대로 장식하여온 영웅청년사를 감회깊이 되새겨보게 하였다.

세상이 얼얼한 변한대에도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언제나 곧바로 나아갈 청춘의 피끓는 심장이 그대로 타고르는 해불이 되어 야회장을 격동의 파도로 설레이게 하였다.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야회장에 들어서신 해불대오가 《백두혈통》, 《후비대》, 《최후대》, 《익측부대》, 《수령보위》의 글자를 새기며 도도히 굽이쳤다.

혁명의 사명부를 결사옹위한 함일신령들과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지켜 싸운 영웅전사들의 무장정신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단대에 즉항쳐버리는 500만의 혁곡단이 될 청년전위들의 역척의 신념과 열적의 기개가 야회장에 차넘치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혁명의 해불봉을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일렬청춘들의 신념의 분출인양 야회장에 《영원하라 청년강국의 해불이여!》의 글말이 펼쳐지고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야회가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값높은 청춘의 위훈을 버처럼 새겨가고있는 미더운 청년전위들에게 뜻깊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가 조직성과 규율성, 예술성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이며 만점이 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과 창작가, 지도교원,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는 장내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청년학생들의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청년학생들은 세상을 들었다놓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로 총정의 200일전투기목정에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는 청년강국의 주인권 증시뜨들이 출몰들을 이어 나갔다.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심장의 피를 울이어놓고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인양 축포의 피성이 장내를 진감하고 축포란들은 휘황찬란한 함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의 미래를 축복하며 아름다움의 일만경을 펼쳐놓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주체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들로 자라난 영웅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성이 어린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확언으로 꾸러갈 불타는 길에 동참되어있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는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주체청년운동의 굽일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갈 김일성, 김정일청년전위들의 역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함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